



‘작별하지 않는다’의 올림 창작 합창곡으로 잇는다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이달 19일 제주문예회관
위촉곡 ‘작별하지 않는다’
관덕정 배경 영상 제작도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올림을 제주에 모인 전국의 시민합창단들이 창작 합창곡으로 잇는다. 제주도 주최, 제주4·3평화재단과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이달 19일 오후 4시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는 제10회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이다.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은 2017년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를 바탕으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전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열려 왔다. 축전을 계기로 5·3합창단, 1987합창단, 녹두꽃시민합창단 등

이 잇따라 창단하는 성과를 이뤘다. 해마다 위촉곡을 발표하는 등이 축전을 통해 창작·편곡한 곡이 200곡에 달한다.

이번 합창축전의 부제는 ‘작별하지 않는다’. 출연진은 제주의 4·3평화합창단을 비롯해 서울 이소선합창단·615시민합창단·합창단그날, 인천 5·3합창단, 충북 두꺼비앙상블합창단, 대전평화합창단, 대구평화합창단, 부산 박종철합창단, 울산 더울림합창단, 경남 개똥이어린이예술단, 전북 녹두꽃시민합창단, 광주 1987합창단 등 13개 합창단 400여 명에 이른다. 제주 서귀포중학교합창단은 찬조 출연한다.

이들은 ‘제주4·3에서 민주주의의 기억으로’, ‘민주주의와 연대의 노래’라는 주제에 맞춰 선곡한 노래를 들려준다. 마지막 순서에는 모든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작별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제주4·3평화재단 제공

하지 않는다’를 부른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올해 축전의 위촉곡으로 한상희 서귀포중 교장이 노랫말을 쓰고 정현식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이 곡은 역사적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꺾이지 않을 평화와 통일의 섬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관람료 무료.

이튿날에는 제주4·3평화공원 내 각명비와 관덕정에서 전 합창단이 참여하는 ‘작별하지 않는다’ 뮤직

비디오 영상 촬영이 이뤄진다. 제작된 영상은 향후 온라인에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기존의 4·3역사 체험이 항쟁의 수난과 저항의 진상을 알고 느끼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축전은 합창 음악을 통해 제주4·3과 제주인에 대한 미래와 존경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초심 새기고 나아갈 힘 얻는 고향

한라미술인협회 30주년
수도권 활동 제주 미술인
추석 맞아 제주서 회원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주 미술인들의 모임인 한라미술인협회. 1996년 창립해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한라미술인협회가 추석을 앞두고 제주에서 회원전의 막을 올린다.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애플갤러리(제주시 연북로 399, 2층).

이번 전시는 고향 제주에 모여 현재의 작업을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자리다.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무는 고향의 모습을 넘어 언제나 돌아와 초심을 되새기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현재의 공간으로 제주를 바라본다.

전시에 달린 제목은 ‘고향에서 -다시, 예술의 길을 묻다’. 30년에 걸친 한라미술인협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



고영훈의 ‘올드 북스(Old Books)’ (2025). 한라미술인협회 제공

민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 작가는 강승희·강주현·고봉수·고영훈·김순겸·김용주·문창배·양계실·양목·전재현·정군태·채기선 등 29명. 일상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미술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소품을 위주로 30여 점이 나온다. 오픈닝은 첫날 오후 5시.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우당도서관 ‘2026 제주독서대전’ 북마켓 참가팀 모집=참가 대상을 전국의 출판사, 책방, 창작자, 독서 관련 기관 등으로 넓혔다. 신청은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전자우편 jisu303@korea.kr).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2026년 이중섭 전문가 포럼=이중섭미술관 재개관과 향후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임근준 미술평론가의 ‘인터아시아의 이중섭: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 네트워크로 다시 읽기’,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미술관 이후: 포맷으로서의 미술관’ 발제가 이어진다. 이달 18일 오후 2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2026 낭만콘서트 ‘웃는 날 좋은 날’=(사)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공동 기획했다. 1980~90년대 코미디 전성기를 이끌었던 원로 희극인들이 참여하는 코미디 공연. 무료. 만 18세 이상 관람가. 입장권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배부한다. 이달 27일 오후 2시와 6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극복·동정의 장애인 넘어 한 인간의 삶

백상연극상 수상 ‘젤리피쉬’

내달 9~10일 제주아트센터

장애·비장애 배우 함께 참여



10월 제주 무대에 오르는 연극 ‘젤리피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공. ©옥상운

여기, 모두를 위한 연극이 있다. 이 공연에선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 등 모든 관객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조명·소리를 조정하고 객석 이동을 허용한다. 포용적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이다. 한글 수어 통역·음성 해설·자막 해설도 붙는다.

제주아트센터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2026 모두예술극장 지역공연사업’ 공모 선정작으로 펼쳐는 연극 ‘젤리피쉬’(연출 민세롬)

다. 공연 일정은 10월 9일 오후 7시, 10월 10일 오후 3시.

영국 작가 벤 웨더필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젤리피쉬’는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2026년 제62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제62회 백상예술대상 백상연극상 수상 등 장애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이 작품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여성 ‘젤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장애를 극복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한 인간의 감정과 선택, 사랑과 자립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주인공 ‘젤리’ 역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무용수 출신 배우 백지윤, 엄마 ‘아그네스’ 역은 정수영, 남자친구 ‘닐’ 역은 김바다·이희종(더블 캐스팅), 저신장장 애가 있는 ‘도미니’ 역은 김범진 등 장애·비장애 배우들이 함께 한다.

관람료는 전석 3만원. 14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입장권 예매는 제주아트센터 누리집. 전선희기자

전시 소식

▷이지유 개인전 ‘물과 불 이야기’=국가의 경계에 자리한 두 섬, 제주도과 대마도의 자연과 사람을 말하는 전시. 물과 불이라는 원초적인 자연의 원소를 통해 경계에 위치한 두 섬에 있었던 삶과 죽음의 기억을 환기한다. 대마도 해안에는 밀려 온 쓰레기 더미 사이로 돌로 쌓아 올린 위령탑이 있다. 인간이 버린 폐기물과 인간을 애도하기 위해 올린 돌이 공존하는 풍경에서 작가는 인류의 원죄 의식과 함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낀다. 이달 17일까지 제주시 동문로 새창라운지(오후 1~7시).

▷한승희 개인전 ‘각자도생(刻字陶生) 2026’=한자어의 같은 음절을 차용해 새김 작업으로 긍정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살아낸 마음이 곧 글씨가 되고, 글씨가 다시 삶의 형태가 되는 순간을 작업의 개념으로 함축했다. 캘리그라피, 서각, 그릇 새김 등 평면·입체 복합 전시. 룩담땃글 대표, 탐라서각연구회 회장 등을 맡

고 있는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이달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산지천갤러리 3층.

▷장숙경 개인전 ‘감각은 늘 조금 늦게’=각각이 대상을 보는 순간 곧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시간, 보는 사람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안료·은박 회화와 어둠을 다룬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예술곳 산양 레지던시 6기 입주 작가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6년 원도심 예술공간 전시실 대관 공모’ 선정 전시. 10월 4일까지 산지천갤러리 2층.

▷박인숙 초대 개인전 ‘침전된 기억, 이상적 풍경’=치나온 시간이 작가의 상상과 만나 새로운 풍경으로 태어난다. 그 풍경 속에서 삶의 따뜻함과 희망, 우리가 잊고 지낸 순수한 마음을 다시 발견한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콘테로소갤러리. 오픈닝 행사는 10월 10일 오후 3시.

추 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도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腎테니스 회원 일동

추 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도영
(오현고 37회)

오현인의 높은 기상, 김도영의
넓은 포부와 하나되어 제주 발전으로
결실 맺기를 응원합니다.

재경 오현고등학교 제37회 동창회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